

교회 축일과 접목된 이교도 풍습

.200여 년 전,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발목을 잡은 몇 가지 요인들 중 하나는 조상 제사였다. 전에는 필수적이고 당연한 의례요 미풍양속으로 여겼던 일이 그리스도교를 선택하는 기로에서는 생사가 달린 걸림돌이 된 것이다.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학문 또는 생활 지침으로 여기고 받아들일 때와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의 강도는 그렇게 사뭇 달랐다.

교도권의 해석과 지침은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를 금지했고, 신앙 선조들은 전통과 효심의 표현으로서 지내오던 제사를 결연히 포기했다. 그리고 이 포기는 엄청난 핍박과 탄압의 명분이 되었다.

그런데 서양의 교회 역사를 훑어보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이미 존재하던 전통적인 의식이나 행사를 무조건 배제하고 거부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랜 옛날의 일이지만, 그 시절의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하는 한편으로 복음이 기존의 문화와 만나는 접목을 꾀했다. 그러한 자취 하나를 오늘날 11월 벽두에 기념하는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과 위령의 날에 앞서 10월 마지막 날 지내는 할러윈(halloween)에서 볼 수 있다.

할러윈의 유래는 켈트 족의 이교도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켈트 족은 독일에서 시작하여 기원전 6~4세기에 프랑스와 영국 등지로 진출하여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삼하인(samhain)이라는 축제가 있었다. 그들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축제를 지내며 죽음의 신 삼하인을 찬양하며 새해와 겨울을 맞이했다.

켈트 족 농부들은 해마다 이 무렵에 2,3일 동안 이 세상과 영들의 세계 사이에 있는 문이 열리고, 죽은 이들의 혼령이 자기 가 살던 이승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다. 그리고 요정, 마녀, 악마 들을 비롯한 외계 존재들에게 사로잡힌 그 괴기한 세력들이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아이들을 유괴하고,

농작물을 마르게 만들고, 우물에 독을 집어넣고, 역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불길한 일들에 대응해서 이승의 사람들은 사악한 영들처럼 분장해서 그들을 속이려 했다. 어쩌면 그들을 달래려고, 심지어는 조롱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 차츰 유럽 대륙이 그리스도교화했고, 그러면서 그들의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데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은 그곳의 토착 문화를 존중하고 존중시켰다. 새 개종자들이 옛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되, 무조건 용인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옛 전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리스도교와 접목을 꾀했다. 그러한 흐름에서 삼하인 축제는 그리스도교의 전파와 함께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11월 1일) 전날 밤의 축제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전야, 곧 ‘할러윈’이라 불리게 되었다(앵글로색슨어로 ‘성인’을 hallow라고 한다. 그리고 ‘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전야’는 All Hallows’ Eve라고 하는데, 이것이 줄여서 Halloween이 되었다).[월간 레지오 마리애, 2015년 10월호, 이석규 베드로]

✦ 함께 기도해 주세요.

주님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 받으시기를 주님께 청합니다.

- 윤안나/ 황애다/ 원정은 카타리나/성낙순 요안나(건강)
 - 잔 페리/백정심 막달레나.전기례 베레나(건강)
 - 김 미나미 로사/우순옥 소피아/김옥륜 세실리아---(건강)
 - 추소연 세실리아/엄 안드레아/서향자 글라라(건강)
 - 김초지 마리아/김미숙 모니카/최기소 바오로(건강)
 - 황순이 마리아/안병목 그레고리오/최이주 베아따(건강)
 - 최순범 사비나/김숙자 수산나/고희석-/김용욱 세레나/(건강)
- 본당주보에 공지하여 기도를 부탁하실 경우, 구역장님을 통하여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미사 지향 (미사신청 ☎ 박 율리아 990-6531, 최 클라라 821-9354)

종류	지향	봉헌자	종류	지향	봉헌자
연	영혼을 위하여	율리아노가정	생	허로사 손미경	아빌라 데레사
연	세상을 떠난 레지오 단원들을 위하여	셋별의 모후 뵤레시디움	생	지살로메를 위해 기도,수고해주신 분들 가정에 평화를	익명
연			생	감사미사	조 안드레아 가정

자	전 레 력	미사 시간	지 난 주 일	
11월3일(화)	연중 제31주간 화요일	오후 7 : 30	교 무 금 주일헌금	\$ 4,085.00 \$ 1,064.00
11월4일(수)	성 가롤로 보로메오 주교 기념일	오전 7 : 30	토요 특전 교구 원 캠페인	\$ 85.00 \$ 600.00
11월5일(목)	연중 제31주간 목요일	오후 7 : 30	성소후원금 사회 복지 후원금	\$ 137.00 \$ 243.00
11월6일(금)	연중 제31주간 금요일	오후 7 : 30	종교서적 및 성물판매 기타수입	\$ 32.00 \$ -
11월7일(토)	연중 제31주간 토요일	오전 10: 30	사제관 건축 합 계	\$ - \$ 6,246.00
11월8일(일)	연중 제32주일	오전 9 :00 오전 11:00	미사 참례	성인 명 학생 명

교무금 내신 분 <감사합니다!> 1~12 최영진 3월 최원숙 3~4월 전미숙 6월 현장균 6~10월 문홍식 8월~9월 이대원 9~10월 정한호 이명숙 9월 권영일 10월 현익군 김형진 신영후 이경희 김진태 이은로 11월 윤영자 10월~12월 주문엽 송민자 9~12월 홍준표 11~12월 최준규

◆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1. 지속적인 전교를 합시다

◆ 예비신자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8시)

2. 봉성체(병자 영성체) 신청

◆ 주-신부님/ 셋째 주 -부제님 ◆ 박 율리아 전례부장 또는 사무실

3. Daylight Saving Time -다음 주일(11월 1일)

◆ 오전 2시를 1시로 변경해주세요

4. 70's & 80's 디스코 댄스 파티

◆ 일시 : 11월 7일 저녁 7시~10시

◆ 참가비 : Pre ticket \$20 each, At the door \$30 each

◆ 간식제공, 베스트 의상상 추천/ 서메리 916-271-3671

5. 위령의 날 묘지 미사 : 11월 7일(토) 10시 30분

◆ 장소 : 65가 묘원 :6700 21st ave Sacramento Slakey Chapel

◆ 차편이 필요하시는 분은 성당으로 10시까지 나오세요.

◆ 위령미사 신청은 전례부장, 사무실로 접수 바랍니다.

6. 성모 신심 미사 -11월 14일 (토) 10시 30분

◆ 미사 후에 안나회 요셉회 있습니다.

7. 정혜 엘리사벳 가을 음악회

◆ 깊어가는 가을 끝자락에 성가대에서 교우들과 친척/친구들을 모시고 작은 음악회를 갖습니다.

◆ 일시 11월 1일(일) 저녁 6시 장소 : 정혜 엘리사벳 성당

◆ 친교실에서 따뜻한 차와 간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8. 김기운 스티브와 김문정 레나 결혼 피로연

◆ 김병길 베드로와 김명의 수산나의 막내

◆ 11월 8일(일) 오후 5시 성당 친교실

◆ 문의 (916)613-3342

9. ME 모임

◆ 21일(토) 오후 6시 김병준 바오로부제님 덕

◆ 1326 Commons Dr. Sacramento Ca 95825

9. 새크라멘토 교구 The One Campaign 모금 참여하기

지난주까지 The One Campaign 봉헌자는 총 99명입니다.

The One Campaign 봉헌금	총 누 계
(\$500) 익명(\$100)	\$41,745.00

10. 성전 건립기금 및 묵주기도 현황

지 난 주 봉 헌 금	총 누 계
-	\$65,634.21

지난주 묵주기도 봉헌	총 누 계
2,705	282,863

11. 감사합니다!

◆ 이번주 점심봉사 : 9구역 보조 : 신부님 김용문요한

◆ 다음주 점심봉사 : 3구역 보조 : 전비아

지구 & 교구소식

회합 : 15일(일) 미사 후 성당

◆ Pr 간부님들은 참석 바랍니다.

모임 안내

성모회 :1일(일) 미사 후 성당

● 구역장 모임 : 11월 6일(금) 7시 30분

● 대건 안드레아 : 8일(일) 9시 미사 후 산행

◆ 장소 POINT BONITA LIGHT HOUSE

● 리노공소 : 15일(일) : 2시 30분 출발

● 사목회 : 20일(금) 저녁미사 후 엘리사벳 방

● 도서관 봉사자 찾습니다.-일요일 미사직후 12-1시 한 달에 한번 도와주실 분을 구합니다. 연락 전스텔라 자매 916-804-1403

주일 /한글학교

● 재능기부 하실분 모집합니다

◆ 서예, 민속놀이, 사물놀이 동양화 고전무용 등등

연락처 : 오크리스티나 (한글학교 교장) (213)700-0051

● 주일/한글 학교 학부모 모임 -11월 1일 주일 10시

◆ 많은 학부모님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 이미경 아네스(530)906-0265 annleerp@gmail.com

오크리스티나 (한글학교 교장) (213)700-0051

전례 봉사	11월 1일	11월 8일	11월 15일	11월 22일
해 설	김은선(제노베파)	김은영(폴리나)	임상일 (프란치스코)	이혜련 (데레사)
1 독 서	이순자 (요안나)	이순자 (요안나)	원영일 (미카엘)	이강덕 (시 몬)
2 독 서	양방림(베로니카)	양경림 (베로니카)	원혜리나 (헤레나)	이재정(젼 마)
복 사	김재열(스테파노) 이대원(베드로)	김민규(다미아노) 윤여훈(로마노)	윤성훈(가브리엘) 송돈희 (요셉)	양경민(안드레아) 류승교 (바오로)
/기도/청소	7RT~8NC	7RT~8NC	7RT~8NC	7RT~8NC
헌금 위원	장석자 고원석	고공자 임그라시아	송돈희 임상일	전비아 김미해

(광고)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주보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주보담당: 최원숙 클라라 ☎(916)821-9354 E-Mail:choiclara@inbox.com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 (916) 548-3278 (916) 362-330</p>	<p>East WestTravel (동서여행사) 9527 Folsom Blvd.Suit #A Sacramento, CA 95827 김 지나 ☎ (916) 362-0260</p>	<p>· 용자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9299 E. Stockton Blvd. Ste.40 Elk Grove, CA 95624 Titan R. E. Services 서주연(마리아) ☎ (916) 271-3671</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 Cirtus Heights, CA 95621 장원석(바오로) ☎ (916) 729-1441 한국어(916) 230-6768</p>
<p>제인 안 변호사 과산법 전문 (, 사업빚, 모기지 등 각종 채무상담) U.C. Berkeley School of Law, JD 2005 De La Cruz Blvd.Ste 281 Santa Clara, CA 95050 ☎ (408) 982-0999</p>	<p>서은미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8525 Madison Ave. #122 Fair Oaks, CA 95628 서은미(안나) ☎ (916) 860-3873</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 린(클라라) ☎ (916) 342-7072</p>	<p>Exigo ITSolutions 컴퓨터 수리 Laptop,Desktop. IT services 김동현 (미카엘) e-mail: support@exigoits.com web add.:www.exigoits.com ☎ (916) 287-1439</p>
<p>1.2.3AutoBody/정비 10170 Croydon Way #F Sacramento, CA 95827 이호영(호영베드로) ☎ (916) 366-0123</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 (916) 605-6974</p>	<p>도움이 필요하신 서류는 미리 예약을 하시고 주말날 성당에서도와드립니다 연 락:전비아 (916)548-7132 이플로렌시아(916)176-1834 사 회 복 지 부</p>	<p>ShoGun Sushi 7330 Fair Oaks Blvd., Carmichael, CA 95608 길성진 ☎(916)483-1224</p>
<p>Law Office of Daniel S. Lee 2720 Gateway Oaks Drive, Suite#140. Sac, Ca 95833 (직장상해법.상해보상.장애사회보상) 변호사: 이진아 (막달레나) dandlelaw@gmail.com ☎(916)922-0107</p>	<p>최병엽공인회계사 Paul Choi&Associates Inc. 9521 Folsom Blvd.suit P Sacramento, 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 (916) 363-2345</p>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 95742 신영후(토마스) ☎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 (916) 361-2020 Fax(916) 361-0433</p>
<p>신세계 여행사 148 Grand Ave. Oakland, CA 94612 Raymond(베로니카) ☎ (510) 451-7487 688-0157</p>	<p>한국위성방송 한국방송(MBC, MBC Everyone,SBS, SBS Plus, YTN, CTS, EBS, Radio Korea, OBS, TBS,CBSBadook)+ (Direc TV) "무 료 설 치" 권영일(프란치스코 ☎ (916) 370-5441</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상해/자동차/집/건강 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 (916) 362-3300 Cell (916) 475-3770</p>	<p>지도 (Creative Art Class) 서양화전공.오랜경험.성실히 (대상:5세~12학년) 4528 Jan Dr, Carmichael, CA 이완순 안나 ☎(916)396-6219</p>



정혜 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주임신부: 최송근(비 오) ☎ (916) 207-4806(C)
본당부제: 김병준(바 오 로) ☎ (217) 352-2487(C)
본당부제: 김상돈(도 미 닉) ☎ (916) 580-8519(C)
사목회장: 김용문(요 한) ☎ (916) 903-6702(C)
총무부장: 김재열(스테파노) ☎ (530) 771-7715(C)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 (916) 368-9204 Fax (916) 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요한묵시록 7:24, 9:14 제 2 독서 요한 1서 3:1-3 복음 마태오 5:1-12



성인의 조건

평화를 빕니다!

전례력으로 한 해의 끝자락인 위령성월입니다. 이 시기에 추수가 끝난 들판과 나무들은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고 풍요로운 새해를 위해 겨울이라는 죽음을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지난 한 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기입니다.

이 달의 첫 날을 교회는 모든 성인 대축일로 지냅니다. 먼저, 고유 축일이 없는 분들의 축일로서, 축일 맞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이날은 우리 모두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세례 받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백성이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 제사으로써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어 하느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사람 곧 성인(聖人)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 다음, 연옥의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들입니다. 비록 약간의 흠이 있어 바로 천국에 들지 못하고 정화 중에 있지만 그들은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모든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이들을 거룩한 무리 곧 성도(聖徒) 혹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릅니다(1고린 1,2).

이 세 부류의 성인들이 한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며 서로 기도와 선행과 공로를 나누는 것을 - 사도신경의 표현대로 - “모든 성인의 통공(친교와 일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한 몸을 이루는 여러 지체들이 서로 생명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복음은 행복선언을 들려줍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사뭇 다른 듯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에게 행복하냐고 물으면 쉽게 대답을 못했습니다.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감정 표현을 잘 못해서이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가까이 어려운 이들이 많은데 나만 좋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걱정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임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제 희망은 누구나 하느님 모상인 만큼 차별받지 않고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모두가 하느님 두려워할 줄 알아 욕심을 줄이고 서로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전체는 힘들더라도 우리 공동체, 우리 지역부터라도 그렇게 된다면 참 행복할 것입니다.

성인들은 생전에 행복한 분들이었습니다. 성인품에 오르고 오르지 않고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그분들은 왜 행복했을까요? 삶의 의미, 이유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 달려 있음을 알기에 오직 하느님께 의탁하였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자기 생명조차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내어줄 때의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체험한 이들입니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겨?” 라는 책도 있듯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성인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행복하기 위해 노력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인을 꿈꾸며 이미 성인으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성인이기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하느님이 주신 삶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함으로써 참 행복을 누리는 성인이 되도록 힘써야겠습니다.

영해 본당 손성문 사도 요한 신부

구원의 문

문을 열어도
또 문
열어제치면 또 다가서는
문
열수록 힘겨운
문
손 끝에 굳은 살 얼마나 박혀야



클레멘스·시인 / 김복태 사도 요한·화가

장종지

--	--	--